

죄임을 알고도 죄를 지은 자

성경 다니엘 5:17-31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교만을 내려놓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겸손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은혜의 찬양 346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2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

-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 2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웃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 3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 4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말씀 읽기 다니엘 5:17-31

-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 21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 24 이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본문 배경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왕과 귀족들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잔과 은잔으로 술을 마시며 그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고벽 위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두려워하며 벽에 적힌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다니엘을 부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와 글자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영광을 빼앗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상을 찬양한 일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처럼 교만했던 벨사살은 결국 그 날 밤에 암살당하고, 그의 나라는 메대 사람인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벽에 쓰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벨사살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요? (22절)

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습니다.

해설 벨사살이 귀족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단히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22절).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성도라면 교만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교만의 죄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스스로 해치게 됩니다.

2 벽에 쓰인 글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5-28절)

답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라는 뜻입니다.

해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고 이 글의 원래 뜻은 ‘세어 보았다. 세어 보았다. 무게를 달아 보았다. 나누어진다’입니다. 즉 벨사살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결국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이었습니.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사람의 행위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돈, 명예, 권력, 스펙 등 세상의 기준에 따라 기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교만하냐’에 따라 기울어집니다.

말씀 적용

1 벨사살은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고,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의 다짐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1-4 땅의 모든 끝이

시편 22편 27-28절

작곡 송세라

땅 의 모 — 든 끝 이 여 호 와 를 — 기 억 하 고 돌아 오 며 —

모 든 나 — 라 의 모 든 족 속 이 — 주 의 앞 에 예 배 하 리 니 나 라는

여 호 와 의 것 이 요 — 여 호 와 는 모 든 나 라 의

주 재 심 이 로 — 다 — 시 편 이 십 이 편

이 십 칠 절 이 십 팔 절 말 씀 — 아 멘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배운 대로 확신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